

“중앙공원1지구 전문가 검증도 공개”

“한양, 공개토론회서 1천990만원 근거 제시 못해” 지적 “한양, 공개토론회서 1천990만원 근거 제시 못해” 지적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적정 분양가 등을 확인하는 전문가 검증 절차 역시 공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초과 이익 검증 등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와 공공기여를 협의한 이후 전문가 검증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달 27일 아파트·신·후분양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약간 늦어졌지만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제와 참여 기업들의 협조 요청 등 때문에 이달 8일 세부 내역 전체를 공개한 바 있다”며 “전문가 검증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협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기준에 대해 강 시장은 “한양 또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를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검증 절차가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면 오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개 전문가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전문가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며 “언론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당사자가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분양을 받겠다는 수분양자가 전문가일 수도 있는 등 모두가 전문가”라고 부연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33㎡당(평당) 분양가를 2천45만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 검증 과정에서 분양

가를 더 낮춰도 된다고 결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강 시장은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된다면 그것을 갖고 SPC와 협상을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양의 1천990만원 선분양 제안으로 지난 6일 진행된 공개토론회가 소독없이 끝난 것과 관련, 강 시장은 “시민들이 1천990만원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한양의 제안이 얼마나 기본 좋고 기쁜 일인가”라며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 토론회 보자고 했는데 잘 안됐다. 한양 측은 1천990만원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한양 측에 돌렸다. /박선경기자

민주당, 광주 4곳 후보자 인준

북갑 정준호만 제외...재추천권 최고위 위임도 의결 당 관계자 “북갑 여론 감안 가급적 빨리 결론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17차 당무위원회 열고 지난 16차 당무위원회에서 보류됐던 광주 4개 선거구 후보자를 인준했다.

이에 따라 ▲동남갑 정진욱 ▲동남을 안도걸 ▲북구를 전진숙 ▲광산을 민형배 후보는 민주당 공천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무위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북구갑 정준호 변호사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후보 교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새롭게

검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않아 적절치 않다는 점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북갑의 지역 여론이 나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는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인준 권한과 재추천 권한을 최고위위원회로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당무위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각각 현지에서 총선에 나서야 하는 등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 북구갑의 공천 후보자 결정은 최고위에서 전권을 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활동 강화 도, 전문 교육강사 무료 서비스

전남도는 11일 “도민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촉진하고 정보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남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협력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 스마트센터 전문 교육강사·상담사(24명)를 통해 도민 누구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예방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관, 단체 등을 강사가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레몬교실’과 ‘WOW 건강한 멘토링(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은 과의존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이다. /김재정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 11일 오후 진도군 교민관에서 열린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주요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민생토론회 ‘보이콧’ 피해는 시민”

국힘 광주시당 “姜시장, 민생 앞에 겸허하길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광주·전남 공동 개최 민생토론회 불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보이콧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기정 시장의 오만함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보이콧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생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 시장은 민생 앞에 겸허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강 시장이 광주와 전남을 분리해 민생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명 민주당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듯 광주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강 시장의 밀실 결정으로 보이콧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형식에 얽매어 실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더 이상 광주를 불행하게 이끌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당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전남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보와 극명히 대비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선경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자 대상 15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11일 “2024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은 전남의 유망 소상공인을 역량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성공적으로 탄생시켰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우수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 등 프랜차이즈 등록에 필요한 기본 사항은 물론, 실제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

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로 도약하기 위한 실전 경영 방법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마케팅,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업체당 최대 2천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서 직영점을 운영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

인이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https://ceei.creativekorea.or.kr/jeonna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은 맛의 고장이라 불리는 만큼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많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프랜차이즈 미개척지”라며 “올해도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일자리본부 061-661-1937-1979) /김재정기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月20만원 지원

전남도, 500명 선정 최대 12개월...22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11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50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인 1979~2005년 출생 청년이다.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15%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된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갖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